

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

-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, 소비지 최대 수산물 전문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
 - 수산물 판매점포 일일이 둘러보며 상인과 소비자 의견 청취
 -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

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7일(목)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홍보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.

박 차관은 먼저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일일이 둘러보며,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현지 상인들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. 또한,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산식품연구실을 찾아 수협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를 점검하였다.

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”라며, “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다”라고 강조하는 한편, “민관의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, 상인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판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구도형	(044-200-5440)
		담당자	사무관	윤기준	(044-200-5443)